

“공정·청렴 실천하고 개혁하는 나라가 다산의 모토”

창립 20년 다산연구소 박석무 이사장

“다산이 18년 동안 유배생활을 하며 좌절하지 않고 계속 학문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람을 느낄 수 있듯이, 우리도 20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산 연구를 계속해 오고 다산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일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사)다산연구소 박석무 이사장(82·우석대 석좌교수·사진)은 최근 전화 인터뷰에서 “비영리 공익법인이라 운영난에 허덕이면서도 다산에 대한 열정 때문에 20년을 버텼다”면서 “감개무량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기적 같은 일이다”고 밝혔다.

박 이사장은 2004년 6월 17일 ‘다산으로 깨우친 세상’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다산연구소를 개소했다. 이어 ‘풀어쓰는 다산이야기’와 ‘다산 포럼’ 등 칼럼을 언론매체에 싣고, ‘실학 기행’ 답사, 학술행사 개최, 다산 저서 출간 등 다산 관련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며 다산학 연구의 산실로 자리잡았다. 박 이사장은 최근 ‘풀어쓰는 다산 이야기’ 1221회째에 ‘다산 연구소 20년’에 대해 다뤘다. 그동안 육필(肉筆)로 직접 써온 글은 200자 원고지로 1만여 매에 달한다. 30



여 만명이 매일 서비스로 구독하고 있는 칼럼이다. 박 이사장은 올해로 다산 정약용(1762-1836) 선생 서세(逝世) 188주기를 맞았지만 오늘날에도 다산의 사상

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한다. 다산의 개혁정신에서 당면한 현실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산은 ‘공정과 청렴의 실천에 온갖 정성을 다 바치겠다’(公廉顯效誠)고 했고 잘못된 국가의 제도와 법을 바꾸지 않으면 나라 망한다. 조선이라는 낡은 나라를 새롭게 고치자(新我之舊邦)고 했습니다. 또한 ‘경세유표’ 서문에서 ‘나라가 텅텅이나 병들지 않게 없다.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반드시 나라가 망한다’(一毛一髮無非病耳及今不改必亡國)고 하잖아.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려면 국가제도를 고치고 바뀌어 공렴(公廉)이 실현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결국은 개혁하는 나라가 다산의 모토입니다.”

창립 20주년을 맞은 다산연구소(www.edasan.org)는 지난 3월 김태희 전 실학박물관장을 새 대표로 선임하고 새로운 ‘시즌2’를 구상하고 있다. 앞으로 미디어 환경변화에 발맞춰 유튜브 채널을 개설할 계획이다.

“대중들이 더 많이 접근할 수 있는 유튜브 채널을 활용해 우리의 뜻을 전달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글·사진=송기동 기자 song@kwangju.co.kr

전남도자원봉사센터, 착한일터 가입 나눔 동참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노동일)이 하 전남 사랑의열매)는 전남도자원봉사센터가 지난 19일 착한일터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전남도자원봉사센터는 보건복지부와 전라남도가 후원하는 사랑의열매 연중캠페인인 ‘우리전남, 희망여름 착!착!착! 나눔캠페인’ 기간에 올해 전남 3호로 착한일터에 가입해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에 동참했다.

이날 전남도자원봉사센터 직원 6명이 정기기부 약정을 통해 나눔을 시작했으며 모 아진 기부금은 전라남도 내 복지사업비로 전액 사용될 예정이다.

한편, ‘우리전남, 희망여름 착!착!착! 나눔캠페인’은 경제 위기와 기후 위기 등 사회적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7월 15일까지 진행된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농촌경제연구원, 한미경제학회와 공동 컨퍼런스 개최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지난 20일 나주시 빛가람동 KREI 대회의실에서 한미경제학회(KAEA)와 함께 ‘불확실성 시대: 도전에 직면한 경제와 정책적 시사점’을 주제로 KREI-KAEA 공동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컨퍼런스는 양 기관이 최근 연구 동향을 공유하고, 농업 뿐만 아니라 현재 국내 경제 전반에 뿌리내린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는 역할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최재원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특별강연을 통해 “주식시장의 수익률 향상 및 국내 주식의 저평가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밸류업 프로그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기업성장동력을 키우는 것이 저금리 시대에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첫번째 발제자인 김용지 KREI 박사는 “농식품 바우처 프로그램이 생계급여 등 현금기반 지원정책보다 수혜가구의 농식품 지출 증가율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강만호 조지아 공과대 교수는 “정교하게 설계된 규제는 혁신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녹색경제 전환을 촉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연광훈 KREI 박사는 두번째 발표에서 “학교 식중독 조기경보시스템이 학교에서 발생하는 식중독 문제 감소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 기관은 각자 준비된 주제로 발표를 마친 뒤 국내 경제 활성화 및 연구 결과에 대한 토론도 펼쳤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용렬 KREI 농촌환경연구본부장이 좌장을 맡았고, 김규일 미시간주립대 교수, 이석배 콜롬비아대 교수, 엄진영 KREI 농산임혁신연구본부장 등이 참여했다.

/장윤영 기자 zzang@

진구복 전남대 교수, 한국육가공협회과학상 수상

전남대 동물자원학부 진구복(사진) 교수가 지난달 29일부터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6차 한국축산식품학회 국제학술발표대회에서 한국육가공협회과학상을 받았다.

진 교수는 지난 30년간 한국식육산업 연구를 하며 육가공 산업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는 ‘식육단백질과 친수성 콜로이드 상호결합 기작’을 밝혀냈고, ‘트랜스글루타미네이스(tranglutaminase)의 식육가공품 활용’ 관련 연구로 현재까지 200여 편의 국내외 SCI급 논문과 10여 건의 특허를 냈다. 특히 나트륨과 지방을 저감하고 과채류에서 추출한 천연 기능성 물질을 더



한 ‘건강·기능성 육가공품 개발’을 위해 힘썼다.

지난해 축산식품학 회장을 역임한 진 교수는 현재 식육처에서 운영하는 축산물류생심의위원회 기준 및

규격 분과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한국육가공협회과학상은 한국 육가공산업과 과학기술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과학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TV프로그램

24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두근두근 버킷리스트(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7	50 인간극장	00 TV 유치원 30 생생정보 스페셜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용감무쌍 용수정(재)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8	25 아침마당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30 생방송 오늘 아침	40 맨 인 블랙스 스페셜 50 좋은아침
9	30 KBS 뉴스	20 일일드라마 스캔들(재)	30 930 MBC 뉴스 55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더불어민주당>	55 SBS 10 뉴스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00 KBS 아침 뉴스타임 20 인간극장 스페셜	45 글로벌 도네이션쇼 W	30 특집 살맛나는 오늘
11	05 여긴 어디(재) 10 TV쇼 진품명품(재)	00 함부로 대해줘(재)	45 헬로키즈 과학교실(재)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5 장애 인식 개선 프로젝트 희망 노트(재)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5 네모세모
1	00 네트워크 공동기획 문화스케치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30 트래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스페셜	25 도덕토크 꼬모 새로운 탐험 55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00 KBS 뉴스 10 전국을 달린다(재) 35 남도지오그래피(재) 55 KBS광주 열린마당(재)			00 뉴스브리핑
3		00 KBS 뉴스타임 15 거명술을 지켜라! 버디프렌즈 30 TV 유치원	55 기본 좋은 날(재)	
4	00 사사건건	00 스튜디오 K	55 5시 뉴스와 경제	00 보물지도 55 닥터 365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재)	10 세상의 모든 다큐	10 폭수면 다행이야 스페셜	00 SBS 오뉴스 50 KBC뉴스와이드
6	00 6시 내고향	00 경제콘서트 35 2TV 생생정보	05 광주MBC 보다	45 닥터 365 50 생방송 투데이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우리말 겨우기	50 일일드라마 스캔들	05 용감무쌍 용수정 40 MBC 뉴스데스크	50 SBS 8 뉴스
8	30 수지맞은 우리	30 월드 24 55 개는 훌륭하다		30 KBC 8 뉴스
9	00 KBS 뉴스 9		00 폭수면 다행이야	00 시사타치! 따따부따 30 도시락 스페셜
10	00 가요무대 55 KBS 뉴스라인W	10 함부로 대해줘	45 오온영 리포트 결혼지옥	10 동상이몽2 너는 내 운명
11	35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재)	20 아이 러브 스포츠 45 MA1(재)		50 열린예술무대 뒤란
12	45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스페셜(재)		30 스포츠 매거진	50 KBC-희망풍차 공동프로젝트 휴먼다큐 나눔(재)

EBS1

05:00 왕초보 영어	09:40 유아 클래스e	16:50 도레미 프렌즈 쇼츠
05:30 클래스 e	10:10 탑골스타 개칭이	16:55 슈퍼왕 일렉트릭 히어로즈(재)
05:50 한국기행	10:30 한국기행(재)	17:10 명탐정 피트4
06:10 세계테마기행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40 드래곤 길들이기: 아홉 왕국의 전설
07:00 미스터리야	11:20 세계테마기행(재)	18:10 EBS 뉴스
07:15 빅 블루	12:00 EBS 뉴스 12	18:30 글로벌 특선 다큐 스페셜
07:30 최강경찰 미니특공대	12:10 극한직업	19:20 고향민국
07:45 다이노스터 공룡수호대	13:00 EBS 평생학교 1교시	19:50 탑골스타 개칭이
08:00 당동명 유치원	13:45 EBS 평생학교 1교시	20:30 오우오우 내 새끼
08:20 한글용사 아이야	14:30 EBS 평생학교 2교시	20:40 세계테마기행 <이제는 카나리아 -그 섬에 가고 싶다, 테네리페>
08:35 슈퍼왕 일렉트릭 히어로즈	15:15 클래스 e	21:35 한국기행 <나를 찾지마 1부 어서 와, 가리왕산은 처음이지?>
08:50 도레미 프렌즈	15:55 불룩스	
09:00 뒤죽박죽섬의 빅토페일리 쇼츠	16:10 당동명 유치원(재)	
09:05 엄마 까투리	16:30 페파 피그	
09:20 미리 기본 대학	16:40 마사와 곰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6월 24일(음 5월 19일 己未)

<p>子</p> <p>36년생 곧 익숙해질 것이니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48년생 문제의 발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 60년생 작은 일을 잘 해내야 큰일도 치를 수 있는 법이다. 72년생 자신과 무관한 제3자의 일에는 아예 관여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84년생 한꺼번에 불리는 형태이다. 96년생 치열하게 고생한 만큼 보람도 느낄 것이니라. 행운의 숫자 : 17, 73</p>	<p>午</p> <p>42년생 결함이 보이지만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는다. 54년생 고질적인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긴다. 66년생 가만히 있으면 값어치가 높아질 것이다. 78년생 일을 다룰고 마음속으로만 삭여야 하는 장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90년생 확실한 분간해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02년생 미연에 대처한다면 화도 막을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13, 55</p>
<p>丑</p> <p>37년생 어떠한 유혹이 있더라도 핵심을 벗어나지 말라. 49년생 일부러 시간을 내서라도 투명하게 매듭을 지어 놓음이 합당하다. 61년생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투명하게 처리하는 것이 옳다. 73년생 진실을 가장한 거짓이 보인다. 85년생 근본적인 원인을 따져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97년생 늦게까지 이어지겠다. 행운의 숫자 : 01, 64</p>	<p>未</p> <p>43년생 원인은 내부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라. 55년생 짜임새 있는 설계가 발전적인 판도를 기약한다. 67년생 허수아지고 종합적인 진단을 한 후에 대책 마련을 하는 것이 옳다. 91년생 활용만 잘 한다면 대박이 날수 있다. 03년생 오히려 좋고 나쁜 불면이 해소되리라. 행운의 숫자 : 45, 97</p>
<p>寅</p> <p>38년생 원래의 구도에서 벗어나고 있으니 재충전할 필요가 있다. 50년생 균형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만 한다. 62년생 새로운 변화를 꾀한다면 재물이 들어올 수 있다. 74년생 말 못할 예로 사향이 있으니 살펴봐야겠다. 86년생 희망적인 구상을 하는 계기가 조성 될 것이다. 98년생 연쇄적인 길사로 이어진다. 행운의 숫자 : 08, 90</p>	<p>申</p> <p>44년생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하다. 56년생 지우면 주관은 위험을 저조할 수도 있느니라. 68년생 기본적인 취지에 충실해야만 무리가 없다. 80년생 지금 수습하지 않는다면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도 있다. 92년생 용도를 달리한다면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04년생 의도적으로라도 타협점을 찾는 것이 옳다. 행운의 숫자 : 03, 72</p>
<p>卯</p> <p>39년생 믿고 의지하여 왔던 바를 갑자기 잃을 수도 있는 운로이다. 51년생 복합적인 구조 속에서 가능성이 보인다. 63년생 아무리 바쁘더라도 근본적인 것부터 파악하는 것이 순서이다. 75년생 부실들을 쳐야 불이 일어나게 된다는 명확한 사실을 알라. 87년생 도움과 관심이 모아져서 길사가 꽃핀다. 99년생 거시적 관점이 필요하다. 행운의 숫자 : 18, 50</p>	<p>酉</p> <p>45년생 서로 탐색하는 시기를 갖게 될 것이니라. 57년생 행 들기는 하지만 거들어 주는 이도 없다. 69년생 상대적인 변수가 나타나서 예상 밖의 판도를 구성할 수도 있다. 81년생 중대한 구도이니 정황에 맞게 도모해야 한다. 93년생 다양한 사례들을 접해 볼 필요가 있다. 05년생 대면하게 처리하는 것도 근사한 일이다. 행운의 숫자 : 07, 58</p>
<p>辰</p> <p>40년생 보류해 왔던 일들을 처리하라. 52년생 참여하면 여러 가지 부가적 이익이 따르리라. 64년생 다자 관계까지 아우르는 것이 연쇄적인 효과를 낳는다. 76년생 기회는 뒷방에 왔다가 쉽게 사라질 것이다. 88년생 초심을 회복한다면 역동적인 에너지가 될 수도 있다. 00년생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만큼 뜻 깊은 체험이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5, 62</p>	<p>戌</p> <p>46년생 초기에는 험경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이룰 것이다. 58년생 결정적인 시기가 도래하고 있으니 수용할 준비를 하자. 70년생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자기 발전에 도움이 된다. 82년생 당면 과제에 집중해야 할 중대한 시기에 와 있다. 94년생 목격하는 바가 없다면 대체해도 무난하겠다. 06년생 예봉을 피하는 것이 적절하다. 행운의 숫자 : 24, 61</p>
<p>巳</p> <p>41년생 반드시 처음과 끝이 같아야만 한다. 53년생 인위적이라면 무용지물이 되어 버릴 공산이 크다. 65년생 성급한 확장보다는 내실 있는 유지가 절실하다. 77년생 안에서는 별것이 없지만 밖에는 이로움이 있다. 89년생 결과 속이 짝찬 상태이니 서둘러 수확하는 것이 이익이리라. 01년생 직접 행해야 얻는 바가 많겠다. 행운의 숫자 : 02, 59</p>	<p>亥</p> <p>35년생 새로운 문사나 뜻밖의 수입이 발생하리라. 47년생 내적인 실속에 신경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59년생 자신감을 갖고 의욕적으로 추진하면 승산이 있다. 71년생 두루 살피고 관심을 갖는 것이 옹이하리라. 83년생 도약의 발판을 제대로 마련할 수 있어야 하느니라. 95년생 유명하려면 주의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행운의 숫자 : 32, 74</p>